



도서관 현장 40여년을 마무리하면서

임승규*

이제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40여년 가까운 오랜 시간을 현장에서 지켜 본 사람으로 지난 과거를 되돌아 보게 된 것에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평생을 한가지 일에만 매어 살았나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해오면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 때도 있어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긍심도 가져보았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광주 서중·일고 학교 도서관에 봉직하면서도 그 지역 모범 사례였었고 이번 한양대 학술정보관의 경우에는 외국의 도서관계 손님들이 방한했을 때 대학도서관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설과 전산화가 잘 된 도서관으로 소개받아 국내외 연간 백 여회에 걸친 손님맞이를 5년째 계속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도서관이나 실무총책을 맡은 개인으로서도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사람 쓰는 일이 어려운 형편에도 윗분의 배려로 대학 최초로 홍보 전담 사서를 배치 받은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봅니다.

우리들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의 10여 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과 대학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지원 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도서관을 대표하는 관장님이나 실무 책임을 맡은 간부 사서들의 앞날을 내다보는 꾸준한 기획과 정책 설정으로 윗분들을 설득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총학생회를 비롯한 대학 전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내어 한 목소리가 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1998년 백남학술정보관은 개관식을 하기까지 우리들 의욕 있는 사서들이 여러 분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도서관의 구조 설계와 시설 계획 심지어는 비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성능을 재검토하고 디자인을 바꾸어보고 배치 도면을 그려 가면서 조명은? 습도는? 냉난방은? 등등 다각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일인가? 미래 지향적인 도서관의 조직(system)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하나하나 청사진을 그려 가면서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들 사서들의 이런 노력이 말처럼 손쉽게 이루어지는가? 사서들의 의견이 총장님이나 관련 부서나 보직 교수들에게 바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가? 이 일을 하면서 겪은 고충들도 적지 않았습니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일

*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사서장, sklim@hanyang.ac.kr

이 글은 지난 6월 국민대학교 도서관 직원 연수원에서 강연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임승규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사서장은 2003년 8월 31일자로 정년퇴임한다.

마다 남모르는 어려움은 대단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했습니다.

도서관 건축 계획의 설계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이 수용되고 윗분의 격려 속에 사서들과 이용자들 편의 위주로 도서관 건축 요구서를 작성하면서 30여 년 동안 내 개인적인 취미로 여행하면서 전 세계 도서관의 자료를 수집한 것이 이처럼 도움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건국대나 단국대에서는 도서관 신축 계획을 세울 때 담당 직원들의 해외 견학단을 운영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그 비용을 절약한 셈이지요. 실제로 시공과정까지 구석구석 자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사서들이나 색채에 관심이 많은 총장님의 뜻에 따라 많은 조언을 해주신 디자인대학 교수들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이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1998년도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설교통부에서 선정한 최우수 공공 건물로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을 세 번씩 지은 대학이 셋 있습니다. 대구 계명대, 한양대, 단국대는 수지에 세 번째 지으려다 중단된 상태지만 연세대 고려대가 각각 새로운 도서관 건립 계획을 갖고 예산을 확보중이며 연세대는 제2도서관 신축 설계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인하대는 조중훈 KAL 회장 기념관으로 9월중에 신축 도서관을 개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하대 도서관이 개관되면 5년 간 백남학술정보관이 누리던 한국 최고의 시설 등의 수식어는 사라지겠지요. 왜냐하면 미국 설계 회사가 세 번씩이나 5,6명의 전문가를 파견해서 우리 설계, 시설, 전산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샅샅이 조사해 갔었고 최종 채택된 설계 내용이 우리와 많이 닮았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도서관의 건축 시설 비품 등 모든 면에서 또 다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노하우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오로지 우리나라 도서관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역할이 한 10년 한국 도서관의 수준을 향상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켜 볼 일은 도서관인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이를 수용하는 학교 고위 보직자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일 것인가입니다. 인하대 도서관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도서관 사서들의 열성과 이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실무 책임자들의 역할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현장 경험과 미래를 지향하는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실천력이 이를 증명할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학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사서들의 능력이 늘 과소평가되고 평가절하된다는 사실과 이 부당한 평가에 대해 사서들마저 별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느 대학이나 도서관 사서처럼 고학력자가 많은 직장은 드물다는 게 현실입니다. 각종 연구소나 대학의 교수들을 제외하고 도서관처럼 우수한 인재들로 짜여진 조직은 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막강한 인력으로 조직된 도서관이 왜? 항상 공무원 속에서나 대학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

로 대접받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나는 내가 대학 도서관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고민하던 화두를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라는데 왜? 도서관이 자칫 대학의 맹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지와 최근에 인터넷이 우리나라에서 급속한 확산을 해서 세계적으로 사용 인구 비율이 많기로 선두권을 유지하고있는 이유가 O양이나 B양의 비디오 때문만인가? 그토록 정보에 민감한 우리나라에서 왜 도서관의 이용자는 항상 제자리걸음인가? 또 하나는 초등학생들까지 고가의 핸드폰을 갖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린이들까지 그렇게 해야만 될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를 풀기 위한 첫 번째는 사서직의 전문성 문제로 전문직들이 자격증을 유지하는데 필요할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얼마나 되는지? 운전면허증도 몇 년에 한번 형식적이라도 재교육을 받는데 사서자격증은 한번 취득하면 보강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도서관과 사서들의 역할과 위상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참으로 알 수 없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5만여명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서관협회에 가입하고 회비 납부를 하는 회원은 몇 천명이라는 사실은 도협 관계자들에게 의례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몇 천명 소수집단으로서 사서직의 전문성이 얼마나 제고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학 출신 교수들만 돌려 가면서 협회 회장 하던 것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을 모셨으면 회원수도 열 배로 늘리고 회비도 열심히 걷어서 활성화된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하고 지혜를 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도서관 소외 현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필요성과 유용성입니다. 도서관이라는 거대한 기구가 한 조직체의 장식품이나 독서실로만 쓰인다면 너무나 큰 예산과 인력 낭비가 될 것입니다. 대학을 운영하는 보직 교수들에게조차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도서관이 되어서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일을 책임질 사람은 바로 사서들입니다.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에게 도서관의 유용성을 일깨워 줄 중요한 역할에 대해 우리는 너무 수수방관 내지는 무사안일하게 처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모든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의 참된 역할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8월 말을 기해 40여 년에 가까운 현장사서 역할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도서관의 환경과 역할이 너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달과 인터넷의 출현과 정보량의 함수적인 증가로 인한 사서의 역할은 너무도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전산기와 전달 매체의 급속한 발전은 그 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만도 벽차게 느껴진다. 삼보컴퓨터와 오름과 연계하여 전국 150여개 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Vintage Las라는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하는데 적극 동참했었지만 이제는 숨이 차서 뒤쫓기도 힘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정년은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만일 저처럼 아날로그 세대에 속하는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마인드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계실줄 믿습니다. 몇 년 전부터 대학 문헌정보학과에 시간을 맡아서 한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네다섯시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별로지만 소득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언 줄 아십니까? 제 연봉입니다. 저 하나가 의욕에 불타는 능력 있는 젊은 사서들 서너명을 쓸 수 있는 예산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겁이 납니다. 그런 뜻에서 나는 직장에서 가장 악질적인 상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서관에서 조직에 폐를 끼치는 무능과 안일과 타성에 젖어있는 적지 않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요즘 IT 산업체에 근무하는 젊은이들 새벽 두 세시에 퇴근합니다. 무역에 종사하는 젊은 엘리트들 평균 퇴근시간이 밤 열시라는데 주 5일제 근무, 다섯시에 갈 퇴근 아침은 5내지 10분은 지각. 점심 식사시간도 가끔은 30분씩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특근 수당은 철저하게 노조를 동원해서 받아내고 연가는 단 하루도 덜 쓰면 안 되는 대학인들이 이곳에는 없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외형적인 데만 있는 게 아니지요? 봉사파트에 근무하면서 하루 종일 PC를 두드리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일년이 지나도 새로운 아이템 하나 간단한 기사 한 줄 써내지 않고 이용자들에 대한 친절한 봉사 활동에는 인색한 그런 분들이 문제지요? 주제자료실을 만들어서 3년이 지났는데 카운터에 “OO 주제 사서 김 OO”이라는 풋말은 붙여 두었는데 말은 주제에 관련된 교수들한테 e-mail 하나 띄우지 않는 그런 사서들이 문제 아닙니까? 이 세상에 2만개 이상의 직업이 있다는데 사서직은 그 선호도에서 두 자리 숫자 안에 든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결혼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전문직 중 하나로 돈 많이 벌어드주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통받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라는 직업이 받는 스트레스와 책 속에 묻혀 고금의 온갖 정보를 섭렵할 수 있는 사서직의 역할에 대하여 비교를 한번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도서관의 사서 중에 사진, 여행에 대단한 전문가를 한 사람 있는데 이 도서관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행에 관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모든 여행에 관한 자료는 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보면 다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다면 우리 도서관은 한국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일조를 하고 그 위상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한양대 안산캠퍼스 도서관의 자랑거리는 한국 최초 최대의 詩자료실입니다. 안산시는 물론 한국시인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보다도 안산 도서관이 더 훌륭하다고 평가받는데 이 일을 혼자서 극성스럽게 이루어낸 사서를 나는 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지식 기반의 정보화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도 새로운 변신과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역할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항상 앞서나가는 사서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